

# 支那宋朝의天台宗과 高麗諦觀禪師에對한考察

吳 松 齋

처음 宋朝의天台宗과 高麗諦觀禪師에對한 略記를紹介함에는 이와關聯되는 天台宗開闢者智者大師智顓를紹介하고저한다。天台宗의開闢者는 智者大師智顓이다。智者大師는 南으로 海門을隔하고 東으로 寧波、鎮海、定海舟山列島를隔한 海陝天台山(今浙江省天台縣)에 修禪寺를創建하여 長住하였으므로 智顓大師를 或云天台大師라고도稱한다。그림으로 天台宗이라는宗名도 此로부터 起源되었다。智顓大師의俗姓은 陳氏,梁大同四年(西紀五三八)에 荊州華容縣인 楊子江上流歷代詩人이憧憬하던 洞庭湖北上河口都市江陵府(今湖北省江陵府)에서 誕生하였다。當時 梁은騷亂不絶의亂世로서 江陵府는 梁魏南北二朝의爭奪地點이되었던 關係로 兵亂의修羅場이되었었다。其時 智顓大師의父親은 江陵의鎮이었던 湘東王(梁武帝第七子)의계 仕하고이셨으므로 兵亂에 一家全部가 傾家到敗의悲運에至하지안이할수업섯다。이어서 兩親은 俱沒하고 智顓大師는 無依無托한 不幸의孤兒가되고말았다。이와같은 悲境에處한 智顓大師는 浮世의荒波에虐待바들음이기지못하여 大決心을가지고 十八歲에佛門에出家하였다。出家後 慧曠律師의계 戒律과大乘佛敎를研鑽하는 一方一意專心으로 端坐修禪하여 大三昧의境地를求하였다。

二十三歲에 光州大蘇山の慧思禪師를親見其時 慧思禪師의相見感叙에云「昔在靈山同聽法華 宿緣所逐今復來矣라고 嘆稱하였다。그래서 慧思는智顓大師를보고 其法器됨을明察하고 智顓大師의所懷에從하여示教하였는데 智顓大師亦是此意를遂하여 一意全心勇猛精進한結果 一夜는 法華經樂天品「是真精進是名法真供養如來」라는一句에 豁然大悟하였다。그래서 智顓大師는 所證한바를 慧思禪師의게告하였다。慧思禪師曰「非爾弗證,非我莫識 所入定者是法華三昧前方便也 所發持者初旋多羅尼也 縱令文字之師 千群萬象 尋汝之辨不可窮矣 當於說法人中是第一」이것을 所謂大蘇開悟라고한다。그러면 天台宗은 其敎理가開悟가源泉이되어 流出하는法流이다。그런데 智顓大師가開創한天台宗은 智顓大師가 貞觀六年(西紀六三一)에入寂後 全十九年에至하여 玄奘法師가 西竺으로부터 輸入相傳하는 新宗法相宗이流布되자 一般民衆은 新宗의新傾向을마여 持味注中되어있으므로 他宗의宗旨는 此에餘地없이 壓倒되어可히氣勢를늘수가업섯었다。이러한關係로 天台宗亦是 百有餘年間衰微의悲運을未免하였다。其後宋朝에至하여 佛敎가다시復興의氣運으로向陽되었으나 天台宗의가장盛行處가所謂吳越의境 今의浙江省地方인故로 이와같은 地域的影響을마여 他宗보다優越의勢는占得할수업섯다。自然法則은循環으로興亡盛衰는그때를거지가지고 輪廻하여옴인지 한때에吳越王忠懿王이「永嘉集(唐玄奘作)을讀誦하다가 同除四住等의文意를未徹하여 天台의德韶國師의게 質意하였으나 韶國師亦是未解하여 螺溪義寂의게 質意함이最可라고應答하였다。그래서 王이義寂을召하여下問한즉 義寂이下問에答하기를 其文義는 智者大師의法華玄義에出한것인데 其書가 唐末에騷亂을因하여 逸散되어버리고 中國國土에는 現存하지안이함으로 此를高麗國에 遠問寄集함이可하다는것을 上願하였다。그야말도 時節因緣이到來하였던지 王亦是此上願에同意하여聽許하고 衰運에至하여있는 佛敎隆興을目標하고 國使를海外高麗國에派遣하였다。當時高麗國에서도 忠懿王의特志를바라 高僧諦觀禪師(天台四敎儀著書)의게下囑하여 多數의經論疏講가지고吳越國에派贈하였다。諦觀禪師는 朝鮮佛敎의隆興의一策인것을 汲히認識하고 法有圓融을實現하려 渡吳하신後 처음 義寂禪師를相面하고 一見에禪師와氣合되어 師의게師를定한後 天台山에入하여 專心一意로 天台의敎學을研究하였다。

諦觀禪師가 吳越國에往到하기는 宋建隆二年(西紀九六一)宋太祖即位二年이다。諦觀禪師는 天台山을

入山한爾後 杜門不出을十年드대여 此山에서入寂하였다。그런데 諦觀禪師의 入宋에對한狀況을 佛祖統記(卷十)에照하여보면 다음과갓다。

吳越王遣使致書。以五十種寶。住高麗求之。其國令諦觀來奉教垂。而智論疏。仁王疏。華嚴骨目。五百門等。禁不令傳。且戒觀師。放中國求師問難。若不能答則奉教文以回。諦觀禪師既至。開螺溪善講授即往參謁。一見心服遂爲禮云々。

以上の略記를深照하여보면 諦觀禪師가 國命을바다 遠大한抱負로써 大陸支那에法을爲하여간몸이엇 만은 엇지高麗故國을 生覺지안이하엿스리오 佛法門中에圓融無碍하여 此土彼土가업고 一圓相即하지 만은 凡夫의愚眼으로볼때에는 故國을도타오지못한것이 遺憾일것이다。後裔우리를 古代先師신남에는 滅死奉佛爲法終身하였것만은 우리들은 此意를얼마나맛고잇스며 近日의우리의活動이어떠한가 反省할 必要가잇다。이것은 中間의回想으로 다시 諦觀禪師는 彼土에서 義寂禪師의 門下에列하여 天台教 觀의蘊奧를究明하기爲하여 螺溪止留十年一日에 坐寂하였는데 生年과入寂當時의俱狀은未詳하다。그런 데 天台四教儀는 諦觀禪師生前에는 著述의有無를不知하고잇섯는데 死後에後人이 此書發見하여 世 上에流布된것이다。이것을 傳記에照하여보면 嘗以所製四教儀藏放薩 人無知者。師留螺溪十年一日坐亡 後人見故篋放之、開視之唯此書而已 由是盛傳諸方 大爲初學發蒙之助云云。諦觀禪師는 義寂禪師로부러 傳하는 天台教和觀心の意를 八教大意에依하여證하고 其篋底에秘藏되어잇던바 入寂하신後 放光의 奇瑞를보고 비로소 諦觀禪師가著述한 天台教學이 後世에出現하게되였다。그러면 이四教儀는 何意 를敘述한인가 이것을 想考하여보건대 佛陀의一大教意를 五 入教로 要約判釋한것이다。이것을 證 考하오면 一謙案台教廣本鈔錄五 八教等云 又三大部等五時八教鈔錄(高麗沙門諦觀錄)云云。이諦觀禪師 에對한記錄을畚에 參考資料의不足과 時間이別로노히곳지못한關係로 詳細한記錄을 보여드리지못한은 愧 未安을 늦기는바이오며 後日完成되어 機會를 엇사오면 다시곳치 供覽코저하나나다。

—「在東京」—

# 南 春 往 生 記

……南湖의小祥을當하야……

朴 允 進

나는 人類學者가 아니므로 사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것은몰으갓다。그러나 피오래엿겿것 만은 事實일것갓다。흔히들 말하기를 저어도 二十萬年前이엿겿것이라고한다。그러면 二十萬年前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만히 낳스며, 얼마나 만히 죽었는지 이것은 常識으로도 잘알수잇는일이다。이러케 사람이 만히났고, 만히죽었스니 사람난 것이 그다지 神奇스러운일이아니며, 사람이죽는것 이 그러케 異常한일은아니다。그때도 世上사람 들은 사람이나면 조와하고, 사람이죽으면 언짢 어한다。恒河의모래와갓치 만히「잇든」사람이 그 리하였스며 지금 「잇는」사람이 그리하고 無限 極數로 「잇을」사람이 또한 그럴것이다。이러케 사람이 낳는것을 깃부게생각하고 사람이죽는것 을 설어하지만은 그중에도 사람이죽는때에 悲

痛하는것이 사람날때의 깃비하는 程度의것은 아니다。웨그러나하면 千年鐵樹에는 꽃이되기쉬 워도 한번 이몸이 입서지면 永遠히 再生할수 없다는 經驗論이 이것은 立證하고잇는 까닭이 다。다시말하면 죽는것은 「힘」잇는사람이나 弱 하사람이나 또는 「돈」잇는이나 업는이나 다시 오지못하는길이 됨으로 사람이 죽은때에는 親戚 同志는 말할것도업고 미워하든사람 怨讎로 역이든 사람까지라도 한가지 죽는사람을 物상 히역이는것이다。그런데 新羅法學興王때에 朴厥觸 이 白乳를뿌리고갓지 一千四百年되든해 一月 一日에 爰敎者 朴鍾雲이 蓮華往生하였스니 朴 鍾雲의法號는 南湖다。南湖는 나의親한빛이요。 同時에 나를 判理解해주는사람중에 한사람이엇 다。南湖가 昨年느진가을에 金剛山神溪寺에서사